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흐리고 비 22/31℃ 2(日) 구름 많음 22/32℃

단기 4342년 (음력 6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34호 1판 2009년 8월 1일 토요일

광주·전남 '영산강 살리기 학생 대탐사' 현장 가보니

영산강 살리기 탐사대원 80명이 지난달 30일 무안군 몽탄면 몽탄대교 인근 제방을 걸으면서 탐사 대장정의 성공을 기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장성에서 시작해 영산강변을 따라 하루 30㎞씩 120㎞를 걸어 1일 목적지인 영암군 나불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내고장 젖줄 소중함 마음에 새겼어요

나흘간 300㎞ 대장정 낙오자 없이 80명 모두 완주

몸이 천근만근이다. 다시 허리 통증도 몰려왔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힐 곳이 없을 만큼 짓물러져 있다. 아스팔트에 피어오른 아지랑이 사이로 앞서가는 친구의 모습이 흐물거린다. 하지만, 성효진(14·광주 경신중 1년)양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참가를 희망해 온 '영산강 살리기 탐사대장정'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떼는 성양을 언니 성수진(여·20·조선대 특수교육학과 2년)씨가 부축한다. "10분간 휴식."

온몸을 짓누르던 배낭의 무게도 잊은 채 도로 갓길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영산강 살리기 탐사시작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식영정 나루. 땀으로 흠뻑 젖은 중·고·대학교 남·여학생 80명이 힘겹게 들어섰다. 굽이친 영산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장성군 전남대 장성수련원을 출발, 영암군 나불도(羅佛島)까지 300㎞의 대장정에 나선 '영산강 살리기 탐사대원들'이다. 영산강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오염된 강을 살리는 한편 역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나흘째 영산강의 줄기를 따라 걷고 있다.

이들은 탐사 도중 영산강 옛 뱃길에 대한 이야기와 각종 개발 사업현황, 수질측정, 강 유역의 문화와 역사 등 영산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직·간접 체험도 했다. 이들은 이날까지 하루 30㎞를 걸어 모두 행군한 거리는 120㎞. 장성~광주~나주~함평~무안 등을 거쳐왔다.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40㎞. 폭우가 쏟아지고 땡볕이 내리쬐었지만 낙오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광주·전남지역 14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탐사대장정의 지나온 4일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민동기(15·화순중 2년)군은 "걷는 게 무척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곁을 지켜줘 참고 견딜 수 있었다"며 "탐사기간 영산강의 수질을 직접 측정해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최낙선(42) 간사단체는 "탐사를 계속하면서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다. 아침·점심·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모두 비우는 것"이라며 "이번 탐사로 학생들이 영산강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탐사대원들은 다시 신발끈을 졸라맸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 후세에게 남김없이 그대로 물려주겠다"던 탐사대원들의 낯에 영산강의 은빛 물결이 일렁였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

담양 '익명의 기부' 2억원 장학금으로 쓴다

돈 상자 발송인 60대 남자 확인

담양군에 지난달 30일 과일 상자에 넣어져 익명으로 배달된 현금 2억원이 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된다.

담양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날 우체국 택배로 익명 배달된 2억원을 (재)담양장학회의 장학금으로 접수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기로 했다.

담양군은 익명의 기부자가 돈과 함께 동봉한 편지에 "골목길에 등불이 되고파"라고 쓴 점에 주목해 장학금의 이름을 가칭 '등불장학금'으로 부르기로 했다.

담양군이 돈 상자의 배달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상자는 29일 오후 4시 28분 광주 광산구 비아우체국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자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챙이 둥글고 넓은 모자를 썼으며 보통 키에,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이 남자는 택배의 내용물을 묻자 '책'이라고 답했으며 발송인 란에 '광주 동구 충장로 OO서점 김XX'라고 적었다.

서점과 전화번호가 실제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담양군은 익명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발송인 추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장학금을 익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추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자가 "적신호가 행동을 막아 이제야 진행합니다"라고 동봉한 쪽지에 적고, 소방대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조건을 내건 점 등으로 미뤄 몇 년 전 "소방대원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으며 퇴직하거나 이직한 소방관들도 기부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익명의 기부자는 전날 담양군에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든 돈 상자를 보냈으며 편지에 '소방대 장학금으로 2, 4년제 1~2명, 졸업 시까지 매년 지급, 읍면장 추천으로 군에서 집행' 등을 부탁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등재…조선의궤 등 이어 한국 7번째

허준 주도로 편찬된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東醫寶鑑·사진)이 한국의 7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이 지난해 3월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의 두 건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이상 2001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의궤(이상 2007년)에 이어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동의보감 판본은 1613년(광해군 5년), 편찬 총책임자인 허준 자신이 직접 간행에 관여해 나온 초판어제본(初版御製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오대산사고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적상산사고본)에 각각 소장돼 있다. 이들은 보물 제1085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년마다 등재 유산이 정해진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4천110원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3일 고시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불황기 휴가 신풍속도 ▶3면 이색 애완동물 인기 ▶4면 아름답고 건강한 집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박태환 명예회복 나서 ▶14면